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유다 사도

부활 후 제8주일 / 오순절

성 티혼 주교

조과복음 / 요한복음 20,19-2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 사도경 99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입당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5

•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오순절 시기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6

• 사도경: 사도행전 2,1-11 / 265. 봉독서 101

• 복음경: 요한 7,37-52. 8,12 / 106. B 31

• 오순절 영성체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오순절 찬양송’ / 265. 오순절 예식서 84

• 이어서 ‘성령강림 대만과’ / 오순절 예식서 88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유다 사도

주님의 사도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고, 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와 형제 관계인 유다로, 타대오라고도 불립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도 유다를 6월 19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도는 신약성서에 포함된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서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참에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유다서 1:3) 이처럼 교회의 사목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단에 대항해서 거룩한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신자들을 위해 밤새워 기도해야 하고, 신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수호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하여 주실 것이다.”(요한 16,13)

세례 예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고, 죄를 씻기는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성사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은총을 받아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구별하며 투쟁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와 투쟁하도록 용기를 주신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 한해 우리 대교구의 표어가 “행실로 가르쳤도다.”이다.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성령의 존재를 느끼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성령의 은총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말과 겉으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내적인 성숙과 변화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적게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작은 부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깊이 있게 많이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 주님의 영적 사랑을 깨달으려면 첫째는 성서 읽기와 기도를 매일하고, 각종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금식과 절제, 봉사와 자선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 정교회는 성인들의 발자취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분들은 성령의 은총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와 철학이 아닌 성령의 깨달음으로 전한다.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 얻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이다.

믿음의 자세는 자기 철학과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그의 뜻에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며 자기 의지로 주님과 거래를 하는 자세는 성령이 함께한다고 볼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과 욕심, 편견과 아집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교활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왜곡되게 하여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삼 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하며 그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고 듣고 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지켜봤으면서도 결국 그의 겉을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땀다. 토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믿고 바라봤던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기대했으므로 영적인 것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다.

☞ 3면으로 계속

거룩한 친교란 무엇인가?

성찬예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을 모신다.

성찬예배는 우리 영혼이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와 영혼이 혼인에 의해 결합하는 것이며, 이로써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게 되며, 더 나아가 인간 공동체를 참된 하느님의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암브로시오스 성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신자의 입술에 놓여질 때,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입을 맞추는 것이며, 또한 신자와 그(녀)의 주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결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지 플로로브스키 신부는 이렇게 썼다. “성찬예배의 절정은 그리스도가 함

께 계시는 것이다. ... 그리고 마치 ‘신비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처럼 신자가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갖는 이런 인격적 만남이야말로 정교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성찬예배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 안으로 그분을 맞아들인다. 최후의 만찬에 계셨던 바로 그 주님이 성찬예배에도 계신다. 같은 빵과 같은 잔, 같은 희생 제사와 같은 성령, 같은 오순절을 경험한다. 이집트 콥틱 정교회의 마테오 신부(Fr. Matthew the Poor, 1919-2006)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찬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먹는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악의 유혹을 맞이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영적 힘을 갖고 깨달음을 얻어 성인들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소 식

대교구

■ 세계총대주교청 주관, 환경과 생명 관련 회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총대주교청 주관으로, 제3회 Halki Summit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환경과 생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 세계 신학 교육 기관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Theological Formation and Ecological Awareness'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40개 이상의 기관에서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련 노력들을 소개하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는 서울 성당의 엘레니 조혜원 교수가 대표로 참석하여 대교구의 캠프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 캠프 사업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신학적, 생태학적, 사목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총대주교님께서 한국의 모든 신자분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복을 전하셨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6월 4일 화요일에 로만 카프작 사제의 집전으로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브게니아, 바울, 콘스탄티노, 세 명의 아이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 성화 전시회

다음 주 6월 23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성당 앞 마당에서 성화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약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매주 월~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 8시까지 열심히 배웠고 그 결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소존 교수와 수강생들의 노고를 축하합니다.

주간 예식

· 6월 17일(월) ▷ 성령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